

2016년 미국 Shasta College SummerProgram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구여*	학번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캘리포니아 Redding
파견대학	Shasta College	기간	2016.06.26. ~ 07.16

2. 파견대학, 수업, 필드트립 등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Shsata College는 Redding downtown에서 차로 10분 정도 들어가면 있습니다. 여느 대학교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수영장, 트랙, 공연장 등 여러 예체능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학교에 있습니다. 학교엔 방학 동안 저희처럼 프로그램 참가차 온 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수업은 9시에 시작해서 4시 30분에 끝나기 때문에 저녁 먹고 수영을 하거나 기타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p>
Hospitality Class	<p>수업 초반에는 호텔과 레스토랑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간단한 과제를 수행하고, 후반에는 교수님께서 제시해주는 사이트에 인터넷 검색을 통한 과제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교수님 설명만 잘 들으면 크게 어렵지 않은 방식이었습니다.</p>
Computer Class	<p>컴퓨터 수업은 오전 Excel 수업과 오후 Lab 수업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엑셀은 나누어주시는 교재에서 하라는 대로 꼭 따라서 하기만 하면 되는 크게 어렵지 않은 수업입니다. 첫 번째 주 오후 시간에는 한국을 소개하거나 샌프란시스코 여행을 소개하는 등의 ppt를 활용한 간단한 발표 과제가 있었고 2,3주 차에는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웹사이트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p> <p>컴퓨터 수업 강사이신 Scott Gordon 교수님이 모르는 건 친절하게 잘 알려주시어서 모두들 큰 어려움 없이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p>

필드트립	<p>저희가 다녀온 필드트립은 사격, 샤페스타 박물관, 올리브 농장, 샌프란시스코, 폭포, 동굴, 만년설이 있는 Shata Mountain이 있었습니다.</p> <p>필드트립에 대한 추가비용은 박물관에 갈 때 입장료 3달러 빼고는 없었습니다.</p> <p>샌프란시스코는 토요일 하루로 다녀오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고 싶은 곳을 미리 정해서 Keith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다녀왔습니다. Redding에서 샌프란까지는 학교 밴을 타고 이동했는데 이동시간이 꽤 많이 걸렸습니다. 저희는 아침 8시에 출발했는데 좀 더 일찍 출발할 걸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p> <p>Shata Mountain에 갈 때는 많이 춥다고 해서 걱정하며 갔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춥지는 않아서 위에 걸칠 옷 하나쯤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Redding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고 기본적으로 30도가 항상 넘었습니다. 그래도 습하지 않고 실내에는 항상 에어컨을 켜 놓기 때문에 더위로 인해 고생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 올 걱정은 없으니 우산은 안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p> <p>햇빛이 강해서 선글라스랑 선크림은 필수로 꼭 챙기면 좋습니다!</p>
안전	<p>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낀 적은 한번도 없을 정도로 평안한 곳이었습니다. 저희가 머문 기숙사에는 저희 8명만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 편히 쉬 수 있었고, 밤에도 기숙사를 감독하는 사람들이 계속 돌아다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p>
숙소	<p>기숙사는 2인 1실로 사용하였고 화장실과 샤워실은 한 층에 2개씩 공용으로 있습니다. 방에는 에어컨이 있어서 시원하게 생활 할 수 있었습니다. 빨래는 세탁실에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어서 1달러 조금 넘는 돈으로 세탁을 할 수 있습니다.</p> <p>기숙사 2층에 홀이 있어서 거기서 다 같이 모여 얘기하거나 놀 수 있습니다.</p> <p>기숙사 내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는 규칙 외에는 별다른 규칙은 없었습니다.</p>

식사	<p>학교식당 (O) 외부식당 (O) 기타 ()</p> <p>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학교 식당에서 나오는 급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요거트, 점심 저녁에는 샐러드가 항상 나오고 신선한 과일도 항상 나옵니다. 금요일과 주말에는 학교 식당에서 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준비해주는 여러 식재료로 저희가 커먼스홀에서 밥을 해먹어야 했었습니다. 주말에는 대부분 필드트립을 나가서 밥을 먹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해먹는 끼니는 몇 번 되지는 않습니다.</p>
교통	<p>학교로 들어오는 버스가 한 시간에 1대씩 있긴 하지만 일찍 끊기기 때문에 기숙사로 다시 들어 올 때는 택시를 이용했었습니다. Keith 선생님이나 Gordon 교수님께 부탁드리면 태워다 주시기도 합니다. 시간만 잘 맞춘다면 버스 타는 것도 어렵지 않고, 여러 명에서 함께 움직이니 택시도 안전하게 타고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지출 금액과 현지에서 추가 지출한 총 지출내역을 써 주세요.

항목	비용(원)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왕복 항공료	1,560,300	국내 납부
보험료	16,750	국내 납부
쇼핑	345,000	
선물	260,000	
교통	12,000	
기타	119,000	
합계	736,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필드트립을 나갈때도 대부분의 식사는 학교에서 제공되고, Redding에서 마트나 아울렛에 가는 일 외에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돈 쓸일이 크게 없어서 환전은 많이 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햇빛이 강렬하니까 선글라스 꼭 챙겨가시구 그렇게 많이 덥지 않은 날은 선선한 날도 있었기 때문에 너무 짧은 옷 보다는 긴팔도 여유롭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식은 구경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져갈 수 있는 음식들 조금씩 챙겨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이 프로그램은 다른 어학연수처럼 스피킹 능력의 향상보다는 미국의 문화를 배우고 사람들을 만나며 경험하는 위주의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간을 즐기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지내다가 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담당자분들도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서 불편함과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3주간 거의 쉬는 날 없이 빡빡했던 일정이나, 샌프란시스코를 하루 밖에 다녀오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짧은 시간동안 많은 것을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학교에 있는 수영장</p>	<p>기숙사 내부</p>
	
<p>이런 총을 한방씩 쏘니당</p>	<p>Redding에 대해 설명듣는 시간</p>



호수에서 수영



학교 식당 식사